

조현병 환자의 최근 5년간 진료경향 분석



박기찬 주임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분석부

1. 들어가며

전 세계 생산가능인구(Working-age population) 중 5%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약 15%는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며, OECD 인구 2명 중 1명은 일생에 걸쳐 1번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은 고용 가능성(Employment prospect), 생산성(Productivity), 임금(Wage)을 낮추고 있다¹⁾.

OECD에서 수집하고 있는 조현병 관련 지표로는²⁾ 보건의료 질 지표 중 초과사망비 지표가 있으며, 국내 조현병 초과사망비는 2014년 기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매년 조금씩 증가추세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일반 인구집단 중 27.6%는 평생 1회 이상, 16.0%는 최근 1년 내에 1개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였으며, 정신질환별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다. 그리고 자살 관련 행동을 한 대상자 중 정신질환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정신질환과 자살 행동의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³⁾.

1) OECD. FOCUS ON HEALTH Making Mental Health Count. 2014.

2) 김경훈 등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3) 조맹제, 박종익, 배안, 배재남 등. 2011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2011.

자살은 정신질환자의 높은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⁴⁾, 특히 조현병 환자에서 자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자살률이 일반대조군의 자살률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들의 의료이용행태를 알아보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2016년 진료비청구자료를 활용하여 환자 수, 진료비, 내원일 수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가. 자료수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청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현병질환의 정의는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산출 정의를 따랐다.

자료 분석 시점은 진료를 받은 환자 수, 내원일 수 등을 산출하기 위해 진료개시일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표 1. 진료비청구자료 자료 구축

구분	자료 구축 방법
자료원	-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청구자료
분석 진료분	-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청구자료: 2012~2016년
조현병 진단명 (OECD 기준)	- F20.x(정신분열병) - F21.x(분열형 장애) - F231(정신분열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적 장애) - F232(급성 정신분열병 - 유사 정신병적 장애) - F25.x(분열정동성 장애)
대상	- 주상병에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입원/외래)
변수 목록	- 환자 연령, 진단명(조현병), 요양기관기호, 입원/외래 구분, 보험자구분, 내원일수, 진료비 등

나. 분석방법

진료비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조현병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하고자 연도별, 의료기관 종별, 보험자 구분, 상병별, 연령대, 성별에 따른 진료비, 내원일 수, 환자 수를 산출하였다.

4) 제영모. 자살과 정신 장애. 생물치료정신의학 2004.

5) 조현병 환자의 자살: 최근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대한조현병학회 2014.

3. 분석결과

가. 조현병 환자 진료 현황

조현병 입원 환자 수와 진료비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12년 대비 2016년에 9,394명 (13.5%)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12년 대비 2016년에 약 558억(9.0%) 증가하였다. 내원일 수는 2012년 대비 2016년 317,376일(2.5%) 증가하였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2년 대비 2016년 18일(-9.7%) 감소하였다.

외래 환자 수는 2012년 대비 2016년 18,300명(9.9%)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12년 대비 2016년 약 12억(1.0%)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2012년 대비 2016년 0.7 일(-7.5%) 감소하였다.

표 2. 조현병 질환의 진료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입원	환자 수(명)	69,469 (-)	69,320 (-0.2)	69,493 (-0.2%)	72,331 (4.1%)	78,863 (9.0%)
	진료비(천원)	617,292,092 (-)	629,011,038 (1.9%)	642,625,164 (2.2%)	669,276,078 (4.1%)	673,108,502 (0.6%)
	내원일수(일)	12,808,678 (-)	12,926,383 (0.9%)	13,035,896 (0.8%)	13,249,317 (1.6%)	13,126,054 (-0.9%)
	1인당 내원일 수(일)	184.4 (-)	186.5 (1.1%)	187.6 (0.6%)	183.2 (-2.4%)	166.4 (-9.1%)
외래	환자 수(명)	185,188 (-)	186,268 (0.6%)	189,416 (1.7%)	196,252 (3.6%)	203,488 (3.7%)
	진료비(천원)	128,461,293 (-)	132,092,070 (2.8%)	133,560,230 (1.1%)	132,834,102 (-0.5%)	129,709,207 (-2.4%)
	명세서(건)	1,736,624 (-)	1,753,466 (1.0%)	1,772,784 (1.1%)	1,793,913 (1.2%)	1,765,800 (-1.6%)
	1인당 평균 외래진료 횟수	9.4 (-)	9.4 (0.4%)	9.4 (-0.6%)	9.1 (-2.3%)	8.7 (-5.1%)

* 주: ()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의료기관 종별 환자수를 비교하였을 때, 입원·외래 환자 수는 매년 증가 중이며, 2016년 기준 병원 입원이 62.6%로 가장 높았으며, 외래에서는 의원이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요양기관 종별 환자 수 점유율은 입원의 경우 병원(62.6%), 요양병원(20.8%) 순이었으나, 외래의 경우는 의원(33.3%), 병원(31.6%) 순으로 의료기관 종별 차이가 있었다.

표 3. 조현병 질환의 의료기관 종별 환자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입원 환자 수		69,469 (100%)	69,320 (100%)	69,493 (100%)	72,331 (100%)	78,863 (100%)
입원	상급종합병원	3,081 (4.4%)	3,039 (8.2%)	2,972 (4.3%)	2,959 (4.1%)	2,750 (3.5%)
	종합병원	5,715 (8.2%)	5,651 (8.2%)	6,188 (8.9%)	6,050 (8.4%)	5,572 (7.1%)
	병원	52,603 (75.7%)	52,583 (75.9%)	52,268 (75.2%)	53,204 (73.6%)	49,335 (62.6%)
	요양병원	1,465 (2.1%)	1,960 (2.8%)	2,295 (3.3%)	4,742 (6.6%)	16,365 (20.8%)
	의원	6,605 (9.5%)	6,087 (8.8%)	5,770 (8.3%)	5,376 (7.4%)	4,841 (6.1%)
외래 환자 수		185,188 (100%)	186,268 (100%)	189,416 (100%)	196,252 (100%)	203,488 (100%)
외래	상급종합병원	23,397 (12.6%)	23,698 (12.7%)	24,505 (12.9%)	24,561 (12.5%)	24,301 (11.9%)
	종합병원	28,120 (15.2%)	28,992 (15.6%)	30,241 (16.0%)	31,751 (16.2%)	31,680 (15.6%)
	병원	66,873 (36.1%)	66,808 (35.9%)	66,767 (35.2%)	67,435 (34.4%)	64,280 (31.6%)
	요양병원	1,791 (1.0%)	2,426 (1.3%)	2,807 (1.5%)	4,872 (2.5%)	15,421 (7.6%)
	의원	65,007 (35.1%)	64,344 (34.5%)	65,096 (34.4%)	67,633 (34.5%)	67,806 (33.3%)

* 주: ()는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비교하였을 때, 요양병원이 입원·외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 중이며, 2016년 기준 입원에서는 병원이 7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외래의 경우 의원급이 4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입원에서는 병원(75.6%), 요양병원(11.5%) 순이었으나, 외래의 경우는 의원(45.2%), 병원(30.1%) 순으로 의료기관 종별 비율의 차이가 있었다.

표 4. 조현병 질환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입원 진료비 합계		617,292,092 (100%)	629,011,038 (100%)	642,625,164 (100%)	669,276,078 (100%)	673,108,502 (100%)
입원	상급종합병원	11,748,934 (1.9%)	11,250,097 (1.8%)	11,485,856 (1.8%)	12,974,402 (1.9%)	13,349,781 (2.0%)
	종합병원	35,758,175 (5.8%)	35,818,078 (5.7%)	40,621,312 (6.3%)	41,061,899 (6.1%)	38,430,204 (5.7%)
	병원	516,235,973 (83.6%)	526,158,504 (83.6%)	532,043,587 (82.8%)	549,599,368 (82.1%)	509,137,668 (75.6%)
	요양병원	10,819,835 (1.8%)	16,020,412 (2.5%)	19,289,998 (3.0%)	28,399,641 (4.2%)	77,088,926 (11.5%)
	의원	42,729,175 (6.9%)	39,763,946 (6.3%)	39,184,410 (6.1%)	37,240,768 (5.6%)	35,101,923 (5.2%)
외래 진료비 합계		128,461,293 (100%)	132,092,070 (100%)	133,560,230 (100%)	132,834,102 (100%)	129,709,207 (100%)
외래	상급종합병원	21,868,330 (9.9%)	22,116,169 (10.2%)	21,620,588 (10.0%)	20,200,994 (9.8%)	17,600,233 (8.7%)
	종합병원	21,689,907 (11.8%)	22,099,360 (12.5%)	22,573,100 (12.6%)	22,683,248 (13.2%)	21,473,853 (12.7%)
	병원	45,716,035 (29.8%)	47,153,293 (31.9%)	47,105,466 (32.0%)	46,600,707 (31.5%)	43,744,612 (30.1%)
	요양병원	792,776 (0.5%)	1,346,864 (0.7%)	1,639,640 (1.0%)	2,047,191 (1.6%)	4,739,079 (3.5%)
	의원	38,394,245 (48.0%)	39,376,384 (44.7%)	40,621,438 (44.4%)	41,301,963 (43.9%)	42,151,430 (45.2%)

* 주: ()는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나. 보험자 구분에 따른 진료 현황

건강보험 입원의 경우 2012년 대비 2016년 환자수가 1,141명(4.1%)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12년 대비 2016년 약 395억(17.0%) 증가하였다. 내원일 수는 2015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6년 감소하였으며, 1인당 내원일 수는 2014년 이후 감소 중이다.

외래는 2012년 대비 2016년 환자 수는 10,263명(8.8%)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12년 대비 2016년 약 23억(-2.8%)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 외래 진료 횟수는 매년 감소 중이며, 2012년 대비 2016년 1.2일(-8.3%) 감소하였다.

표 5. 건강보험 대상 진료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입원	환자 수(명)	28,091 (-)	28,069 (-0.1%)	27,914 (-0.6%)	28,542 (2.2%)	29,232 (2.4%)
	진료비(천원)	231,744,658 (-)	237,754,492 (2.6%)	247,423,296 (4.1%)	268,055,040 (8.3%)	271,221,972 (1.2%)
	내원일 수(일)	3,655,375 (-)	3,687,404 (0.9%)	3,718,184 (0.8%)	3,787,407 (1.9%)	3,657,131 (-3.4%)
	1인당 내원일 수(일)	130.1 (-)	131.4 (1.0%)	133.2 (1.4%)	132.7 (-0.4%)	125.1 (-5.7%)
외래	환자 수(명)	116,640 (-)	118,090 (1.2%)	120,542 (2.1%)	124,018 (2.9%)	126,903 (2.3%)
	진료비(천원)	83,213,558 (-)	85,909,320 (3.2%)	86,379,374 (0.5%)	84,444,062 (-2.2%)	80,867,212 (-4.2%)
	명세서(건)	1,125,031 (-)	1,135,499 (0.9%)	1,144,823 (0.8%)	1,148,343 (0.3%)	1,111,396 (-3.2%)
	1인당 평균 외래 진료 횟수	9.6 (-)	9.6 (-0.3%)	9.5 (-1.2%)	9.3 (-2.5%)	8.8 (-5.4%)

* 주: (-)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의료급여 입원의 경우 환자 수는 2012년 대비 2016년 8,238명(19.9%)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12년 대비 2016년 약 162억(4.2%) 증가하였다. 1인당 내원일수는 2012년 대비 2016년 30.4일(-13.7%) 감소하였다.

외래는 환자수가 2012년 대비 2016년 8,005명(11.7%)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12년 대비 2016년 약 36억(8.0%) 증가하였으며, 1인당 평균 외래 진료 횟수는 매년 감소 중이며, 2012년 대비 2016년 0.4일(-4.3%) 감소하였다.

표 6. 의료급여 대상 진료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입원	환자 수(명)	41,351 (-)	41,199 (-0.4%)	41,530 (0.8%)	43,735 (5.3%)	49,589 (13.4%)
	진료비(천원)	385,262,895 (-)	390,474,767 (1.4%)	394,329,518 (1.0%)	400,431,701 (1.5%)	401,421,189 (0.2%)
	내원일 수(일)	9,149,933 (-)	9,231,085 (1.4%)	9,308,512 (0.8%)	9,454,082 (1.6%)	9,464,692 (0.1%)
	1인당 내원일 수(일)	221.3 (-)	224.1 (1.3%)	224.1 (0.0%)	216.2 (-3.6%)	190.9 (-11.7%)
외래	환자 수(명)	68,504 (-)	68,130 (-0.5%)	68,814 (1.0%)	72,143 (4.8%)	76,509 (6.1%)
	진료비(천원)	45,201,954 (-)	46,138,482 (2.1%)	47,148,536 (2.2%)	48,352,483 (2.6%)	48,812,859 (1.0%)
	명세서(건)	612,488 (-)	618,632 (1.0%)	629,140 (1.7%)	646,541 (2.8%)	654,888 (1.3%)
	1인당 평균 외래 진료 횟수	8.9 (-)	9.1 (1.6%)	9.1 (0.7%)	9.0 (-2.0%)	8.6 (-4.5%)

* 주: ()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건강보험 입원의 경우 2016년 기준 입원이 58.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높았다. 요양병원은 2015년 대비 2016년 2배 이상 환자수가 증가하였으며, 요양기관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수는 감소하였다.

외래는 2016년 기준 의원이 3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높았다. 병원과 의원에서 50% 이상 차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17.2%, 16.0%를 차지하였다. 요양병원의 경우 2015년 대비 2016년 2배 이상 환자수가 증가하였다.

표 7. 건강보험 대상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입원 환자 수		28,091 (100%)	28,069 (100%)	27,91 (100%)	28,542 (100%)	29,232 (100%)
입원	상급종합병원	2,951 (10.5%)	2,890 (10.3%)	2,813 (10.1%)	2,809 (9.8%)	2,616 (8.9%)
	종합병원	2,691 (9.6%)	2,618 (9.3%)	2,824 (10.1%)	2,753 (9.6%)	2,428 (8.3%)
	병원	18,435 (65.6%)	18,590 (66.2%)	18,293 (66.2%)	18,589 (65.1%)	16,992 (58.1%)
	요양병원	630 (2.2%)	906 (3.2%)	1,033 (3.7%)	1,703 (6.0%)	4,852 (16.6%)
	의원	3,384 (12.0%)	3,065 (10.9%)	2,951 (10.6%)	2,688 (9.4%)	2,344 (8.0%)
외래 환자 수		116,640 (100%)	118,090 (100%)	120,542 (100%)	124,018 (100%)	126,903 (100%)
외래	상급종합병원	21,477 (18.4%)	21,618 (18.3%)	22,260 (18.5%)	22,200 (17.9%)	21,813 (17.2%)
	종합병원	17,977 (15.4%)	18,675 (15.8%)	19,457 (16.1%)	19,457 (16.4%)	20,257 (16.0%)
	병원	35,482 (30.4%)	35,676 (30.2%)	35,670 (29.6%)	35,837 (28.9%)	33,909 (26.7%)
	요양병원	733 (0.6%)	1,203 (1.0%)	1,447 (1.2%)	2,653 (2.1%)	7,725 (6.1%)
	의원	40,971 (35.1%)	40,918 (34.6%)	41,708 (34.6%)	42,988 (34.7%)	43,199 (34.0%)

* 주: ()는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의료급여 입원의 경우 2016년 기준 병원이 65.2%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요양병원, 종합병원 순이었다. 요양병원은 2015년 대비 2016년 2배 이상 환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요양기관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수는 감소하였다.

외래는 2016년 기준 병원이 39.7%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의원, 요양병원 순이었다. 외래 진료 중 병원과 의원이 약 60% 정도 차지하였으며, 종합병원이 14.8%를 차지하였다. 요양병원은 2015년 대비 2016년 2배 이상 환자 수가 증가하였다.

진료영향분석

표 8. 의료급여 대상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입원 환자 수		41,351 (100%)	41,199 (100%)	41,530 (100%)	43,735 (100%)	49,589 (100%)
입원	상급종합병원	130 (0.3%)	149 (0.4%)	159 (0.4%)	150 (0.3%)	134 (0.3%)
	종합병원	2,999 (7.3%)	2,983 (7.2%)	3,318 (8.0%)	3,246 (7.4%)	3,104 (6.3%)
	병원	34,166 (82.6%)	33,991 (82.5%)	33,972 (81.8%)	34,612 (79.1%)	32,341 (65.2%)
	요양병원	835 (2.0%)	1,054 (2.6%)	1,262 (3.0%)	3,039 (6.9%)	11,513 (23.2%)
	의원	3,221 (7.8%)	3,022 (7.3%)	2,819 (6.8%)	2,688 (6.1%)	2,497 (5.0%)
외래 환자 수		68,504 (100%)	68,130 (100%)	68,814 (100%)	72,143 (100%)	76,509 (100%)
외래	상급종합병원	1,920 (2.8%)	2,080 (3.1%)	2,245 (3.3%)	2,361 (3.3%)	2,488 (3.3%)
	종합병원	10,100 (14.7%)	10,269 (15.1%)	10,725 (15.6%)	11,320 (15.7%)	11,348 (14.8%)
	병원	31,390 (45.8%)	31,132 (45.7%)	31,096 (45.2%)	31,598 (43.8%)	30,370 (39.7%)
	요양병원	1,058 (1.5%)	1,223 (1.8%)	1,360 (2.0%)	2,219 (3.1%)	7,696 (10.1%)
	의원	24,036 (35.1%)	23,426 (34.4%)	23,388 (34.0%)	24,645 (34.2%)	24,607 (32.2%)

* 주: ()는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건강보험 입원의 경우 2016년 병원이 69.3%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요양병원, 의원 순이었다.

외래는 의원이 3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19.7%, 17.7% 차지하였으며, 입원과 외래의 요양병원 진료비는 2015년 대비 2016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9. 건강보험 대상 진료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입원 환자 수		231,744,658 (100%)	237,754,492 (100%)	247,423,296 (100%)	268,055,040 (100%)	271,221,972 (100%)
입원	상급종합병원	11,606,278 (5.0%)	11,071,622 (4.7%)	11,304,2834 (4.6%)	12,775,565 (4.8%)	13,201,115 (4.9%)
	종합병원	14,247,203 (6.1%)	13,714,700 (5.8%)	16,422,073 (6.6%)	17,787,770 (6.6%)	16,995,443 (6.3%)
	병원	174,895,335 (75.5%)	180,949,744 (76.1%)	185,941,291 (75.2%)	200,774,130 (74.9%)	187,877,203 (69.3%)
	요양병원	4,736,821 (2.0%)	7,658,457 (3.2%)	9,343,304 (3.8%)	13,016,069 (4.9%)	31,173,025 (11.5%)
	의원	26,259,021 (11.3%)	24,359,968 (10.2%)	24,412,344 (9.9%)	23,701,506 (8.8%)	21,975,186 (8.1%)
외래 환자 수		83,213,558 (100%)	85,909,320 (100%)	86,379,374 (100%)	84,444,062 (100%)	80,867,212 (100%)
외래	상급종합병원	20,593,836 (24.7%)	20,717,166 (24.1%)	20,136,727 (23.3%)	18,628,615 (22.1%)	15,933,341 (19.7%)
	종합병원	15,299,963 (18.4%)	15,555,360 (18.1%)	15,610,725 (18.1%)	15,418,607 (18.3%)	14,295,402 (17.7%)
	병원	24,893,803 (29.9%)	25,987,280 (30.2%)	25,784,439 (29.9%)	25,036,456 (29.6%)	23,325,609 (28.8%)
	요양병원	255,314 (0.3%)	667,356 (0.8%)	844,941 (1.0%)	1,100,322 (1.3%)	2,585,703 (3.2%)
	의원	22,170,641 (26.6%)	22,982,156 (26.8%)	24,002,542 (27.8%)	24,260,061 (28.7%)	24,727,157 (30.6%)

* 주: ()는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의료급여 입원의 경우 2016년 병원이 8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요양병원, 종합병원 순이었다.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90% 이상 진료비 비율을 차지하였다.

외래는 병원이 41.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원, 종합병원 순이었다. 병원과 의원에서 70% 이상 진료비 비율을 차지하였다.

진료비현황

표 10. 의료급여 대상 진료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입원 환자 수		385,262,895 (100%)	390,474,767 (100%)	394,329,516 (100%)	400,431,701 (100%)	401,421,189 (100%)
입원	상급종합병원	142,657 (0.0%)	178,475 (0.0%)	181,572 (0.0%)	198,837 (0.0%)	148,666 (0.0%)
	종합병원	21,251,125 (5.5%)	21,326,174 (5.5%)	23,351,062 (5.9%)	22,500,551 (5.6%)	20,987,329 (5.2%)
	병원	341,315,946 (88.6%)	345,204,186 (88.4%)	346,078,124 (87.8%)	348,809,479 (87.1%)	321,242,555 (80.0%)
	요양병원	6,083,014 (1.6%)	8,361,955 (2.1%)	9,946,693 (2.5%)	15,383,572 (3.8%)	45,915,901 (11.4%)
	의원	16,470,154 (4.3%)	15,403,978 (3.9%)	14,772,067 (3.7%)	13,539,262 (3.4%)	13,126,737 (3.3%)
외래 환자 수		45,201,954 (100%)	46,138,482 (100%)	47,148,536 (100%)	48,352,483 (100%)	48,812,859 (100%)
외래	상급종합병원	1,274,494 (2.8%)	1,399,003 (3.0%)	1,483,860 (3.1%)	1,572,379 (3.3%)	1,666,892 (3.4%)
	종합병원	6,345,114 (14.0%)	6,499,731 (14.1%)	6,930,160 (14.7%)	7,227,084 (14.9%)	7,149,338 (14.6%)
	병원	20,821,280 (46.1%)	21,166,012 (45.9%)	21,320,921 (45.2%)	21,564,251 (44.6%)	20,418,981 (41.8%)
	요양병원	537,462 (1.2%)	679,508 (1.5%)	794,698 (1.7%)	946,869 (2.0%)	2,153,376 (4.4%)
	의원	16,223,605 (35.9%)	16,394,228 (35.5%)	16,618,896 (35.2%)	17,041,902 (35.2%)	17,424,273 (35.7%)

* 주: ()는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다. 연령대별 환자 진료 현황

2016년 기준 40대에서 41,764명(26.7%)으로 가장 높았으며, 30-40대에서 약 50%를 차지하였다. 의료급여의 경우, 2016년 기준 50대에서 약 45,638명(36.2%)으로 가장 높았으며, 40-50대에서 60%를 차지하였다. 건강보험에서는 30-4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의료급여에서는 40-5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보험자 구분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있었다.

표 11. 건강보험 대상 연령대별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건강보험 환자 수		144,731 (100%)	146,159 (100%)	148,456 (100%)	152,560 (100%)	156,135 (100%)
건강 보험	0-9세	21 (0.0%)	16 (0.0%)	16 (0.0%)	16 (0.0%)	31 (0.0%)
	10-19세	4,096 (2.8%)	3,765 (2.6%)	3,620 (2.4%)	3,639 (2.4%)	3,633 (2.3%)
	20-29세	20,279 (14.0%)	20,176 (13.8%)	20,199 (13.6%)	20,465 (13.4%)	20,783 (13.3%)
	30-39세	36,044 (24.9%)	34,904 (23.9%)	33,789 (22.8%)	33,106 (21.7%)	32,566 (20.9%)
	40-49세	39,857 (27.5%)	40,501 (27.7%)	41,164 (27.7%)	41,595 (27.3%)	41,764 (26.7%)
	50-59세	25,786 (17.8%)	26,886 (18.4%)	28,173 (19.0%)	29,696 (19.5%)	31,112 (19.9%)
	60-69세	11,912 (8.2%)	12,467 (8.5%)	13,510 (9.1%)	15,025 (9.8%)	16,629 (10.7%)
	70-79세	5,192 (3.6%)	5,643 (3.9%)	5,993 (4.0%)	6,469 (4.2%)	6,867 (4.4%)
	80-89세	1,352 (0.9%)	1,526 (1.0%)	1,690 (1.1%)	2,145 (1.4%)	2,321 (1.5%)
	90세 이상	192 (0.1%)	275 (0.2%)	302 (0.2%)	404 (0.3%)	429 (0.3%)

* 주: ()는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표 12. 의료급여 대상 연령대별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료급여 환자 수		109,855 (100%)	109,329 (100%)	110,344 (100%)	115,878 (100%)	126,098 (100%)
의료 급여	0-9세	9 (0.0%)	10 (0.0%)	6 (0.0%)	9 (0.0%)	14 (0.0%)
	10-19세	679 (0.6%)	619 (0.6%)	552 (0.5%)	634 (0.5%)	585 (0.5%)
	20-29세	3,539 (3.2%)	3,242 (3.0%)	3,110 (2.8%)	3,188 (2.8%)	3,194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 11. 건강보험 대상 연령대별 분포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의료 급여	30-39세	15,533 (14.1%)	14,047 (12.8%)	12,690 (11.5%)	12,341 (10.6%)	12,332 (9.8%)
	40-49세	39,296 (35.8%)	37,817 (34.6%)	37,002 (33.5%)	36,865 (31.8%)	37,932 (30.1%)
	50-59세	34,536 (31.4%)	36,139 (33.1%)	37,906 (34.4%)	40,851 (35.3%)	45,638 (36.2%)
	60-69세	12,127 (11.0%)	12,914 (11.8%)	14,334 (13.0%)	16,696 (14.4%)	20,438 (16.2%)
	70-79세	3,524 (3.2%)	3,816 (3.5%)	3,812 (3.5%)	4,190 (3.6%)	4,851 (3.8%)
	80-89세	552 (0.5%)	638 (0.6%)	823 (0.7%)	953 (0.8%)	979 (0.8%)
	90세 이상	60 (0.1%)	87 (0.1%)	109 (0.1%)	151 (0.1%)	135 (0.1%)

* 주: ()는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라. 조현병 진단코드 분포 현황

조현병 주 진단명 분포를 비교하였을 때, 입원·외래에서 모두 주진단명이 F20(정신분열병)인 진단코드로 진단 받은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6년 기준 입원에서는 94.5%, 외래에서는 90.6%를 차지하였다. 입원의 주진단명이 F21인 환자보다 F23으로 진단된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외래에서는 주진단명이 F23인 환자보다 F21으로 진단된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표 13. 주진단명에 따른 환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입원 환자 수		66,219 (100%)	66,187 (100%)	66,219 (100%)	68,890 (100%)	75,707 (100%)
입원	F20(정신분열병)	62,850 (94.9%)	62,765 (94.8%)	62,562 (94.5%)	64,975 (94.3%)	71,547 (94.5%)
	F25(분열정동성장애)	3,005 (4.5%)	3,032 (4.6%)	3,283 (5.0%)	3,568 (5.2%)	3,807 (5.0%)
	F23(정신병적장애)	240 (0.4%)	276 (0.4%)	275 (0.4%)	260 (0.4%)	261 (0.3%)
	F21(분열형장애)	124 (0.2%)	114 (0.2%)	99 (0.1%)	87 (0.1%)	92 (0.1%)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외래 환자 수		174,754 (100%)	175,745 (100%)	178,842 (100%)	185,171 (100%)	193,505 (100%)
외래	F20(정신분열병)	158,945 (91.0%)	159,997 (91.0%)	162,821 (91.0%)	168,041 (90.7%)	175,243 (90.6%)
	F25(분열정동성장애)	12,671 (7.3%)	12,832 (7.3%)	13,159 (7.4%)	14,288 (7.7%)	15,169 (7.8%)
	F21(분열형장애)	1,854 (1.1%)	1,719 (1.0%)	1,627 (0.9%)	1,556 (0.8%)	1,551 (0.8%)
	F23(정신병적장애)	1,284 (0.7%)	1,197 (0.7%)	1,235 (0.7%)	1,286 (0.7%)	1,542 (0.8%)

* 주: ()는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4. 나가며

최근 5년간 조현병 환자의 진료경향분석을 통해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해 보았다. 조현병 환자수와 진료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입원환자 1인당 내원일 수와 1인당 평균 외래 진료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입원과 외래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환자 수 분포에서 입원에서는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높았으나, 외래의 경우 의원, 병원 순으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보험자 구분에 따른 비교에서는 환자 수와 진료비는 의료급여에서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대상 중 상급종합병원에 진료를 받은 환자는 9~10%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의료급여에서는 1% 미만으로 종별에 따른 의료이용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 대상연령에서는 40대가 약 25%를 차지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연령에서는 50대가 약 35% 이상 차지하여 보험자 구분에 따른 연령대의 분율 차이가 있었다.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 보험자 구분(건강보험, 의료급여), 연령대, 진료(입원·외래)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에 차이를 보였으며, 향후 보험자 구분 여부와 연령대 등과 같이 의료이용의 영향을 주는 요인과 차이점의 원인을 찾고자 요양급여 적용기준, 청구방법 등 문헌검토를 통해 연구를 심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